

遞信文化

大正〇七上ノ八〇天ノ下ノ下



丙午年 1+2月号

CONTENTS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우체국과 사람들

2026년 1+2월호(통권 768호)

발행인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발행일 2026년 1월 2일

발행처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담당 변혜민 044-200-8886 / hyemnin02@korea.kr)

편집인 박철

편집위원 지현근, 오영진, 임종민, 김귀호

기획 한국우편사업진흥원(담당 조현주 02-2036-0824 / hj1911@posa.or.kr)

편집/디자인 더에이치㈜

04

테마 프롤로그

06

우정가족 앙케트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장만할 물건은?

10

아주 보통의 우정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엿한 우정인이 된
세종금남우체국 서민정 주무관

12

우정 포토제닉

주목! 우정 사진 공모전 시작!
추억도 남기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14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통과 교감'으로 나아갈
우체국의 미래를 꿈꾸다
정순영 고문

16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I

어바웃 타임

만화로 보는 그 시절 우체국 이야기

18

헬스레터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뭐가 더 좋을까?

DISCOVERY

20

컬처레터

테토냐 에겐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22

일상다반사

24

우체국 옆 공항

겨울바람에도 끄떡없는
청주국제공항의 뜨거운 여정

26

우체국 트립 I

함께 웃고 함께 달리는
청주우체국

31

우체국 트립 II

청주를 감싸는 역사와 자연의 성,
상당산성

32

우정 포커스

다시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

34

나만 몰랐던 우체국 서비스

안 먹는 약, 우체통에 넣으세요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RECOVERY

이 코드는 활자가 소리로 전환되는 '보이스 아이'입니다. 인쇄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것으로 아이엠피 설치 후 카메라로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음성으로 <우체국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6

우체국 핫클립

38

우정 카툰

40

우체통 앞에서

42

POST NEWS

44

우체국 행복나눔 소식

우체국과 함께하는
소아암 환아들의 성장스토리
희망빛이 자란다

48

우정 알림장

50

POST EVENT



postnews.kr
<우체국과 사람들> 앱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창 너머 가지마다 고운 눈꽃이 켜켜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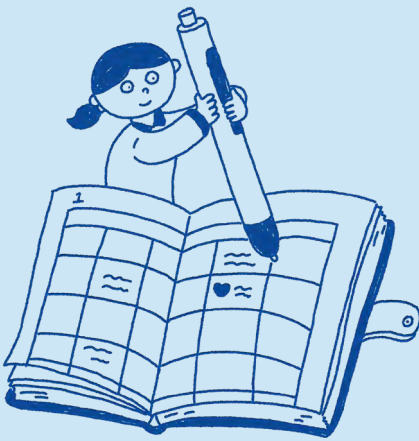


창들 아래, 다정히 포개진
《우체국과 사람들》의 80년을
어루만져 깨워봅니다.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장만할 물건은?

1위

한 해의 기록을 써 내려갈
다이어리



새로운 각오를 꺾꺾 눌러 담을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싶다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작은 다이어리에 하루 한 줄이라도 일상을 남기고 새해 목표와 계획을 손글씨로 적으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다이어리의 디자인과 구성, 크기를 고르는 과정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2위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하는
신발



새해를 힘차게 달려보고 싶어 새 신발을 준비하고 싶다는 우정가족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의 러닝화는 러닝을 결심한 순간의 설렘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는 든든한 아이템이다. 발에 잘 맞는 신발 한 켤레와 함께 새로운 목표 한 걸음씩 실천한다면 새해를 더욱 활기차게 열 수 있다.

3위

일상의 자유를 선물하는
자동차



2026년에는 드림카를 장만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 가족 여행과 일상의 출퇴근길 모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책임져줄 차는 새로운 한 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몇몇 우정가족은 오래된 차를 정리하고 잦은 고장과 기름값 부담을 덜어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교체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운전을 꿈꾸고 있다.

#기록의힘

#목표달성

#감사일기

#러닝화

#활기찬출발

#꾸준함

#드림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하며 다짐하곤 한다. 설렘 가득한 새출발을 앞두고
우정가족에게 물었다. 2026년, 가장 먼저 장만하고 싶은 새 물건은 무엇일까?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JUNO

설문기간 : 2025. 11. 17.~11. 30.

응답자 수 : 1,216명

해당 설문조사는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위

한층 편안한 숙면을 도와줄
침대



낡은 침대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침대를 장만하고 싶다는 답변이 4위를 차지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의 질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침대를 고를 때는 개인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맞는 소재와 지지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잠자리 환경은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돕고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5위

업무와 취미를 도와줄
컴퓨터



자기 계발을 위한 노트북이나 자녀의 학업용 컴퓨터를 준비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AI 시대를 대비해 최신 GPU를 장착한 고성능 노트북부터 문서 작성이나 온라인 강의용 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OTT 시청이나 업무용으로 적합한 태블릿 PC를 장만하고 싶다는 답변도 눈에 띄었다.

6위

먹는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
냉장고



신선한 식재료와 김치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해 줄 새로운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신 냉장고는 온도와 습도를 섬세하게 조절해 식재료의 신선도를 높여주는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 많아 신선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은 주방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간에 조화를 더해 마치 인테리어 요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

- #숙면환경
- #꿀잠준비
- #수면질향상
- #AI시대준비
- #자기계발
- #문서작성
- #신선유지
- #김치냉장고
- #생활필수템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장만할 물건은?



1

서울서초3동우체국
강도균
걸음마 시작하는
아기의 새 신발



4

고양풍산동우체국
한지영
점점 빨라지는 시계가
제 세월 같아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벽시계를
사야겠어요^^



2

구미상모동우체국
박민아
나의 주름을
다림질하듯 퍼줄
피부과 시술권



5

부산금곡본동우체국
서혜성
쇼츠 동영상
도파민에서
탈출하기 위한
이북 리더기



3

서울한남동우체국
박창근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하기 위해
박태환 사진

©박태환 홈페이지- 2018 아레나촬영



6

군위우체국
임경옥
사랑하는
사춘기 딸의
상냥한 말투



7



화성우체국
남혜영
일렉기타.
새해엔 로커
꿈나무가
될거야이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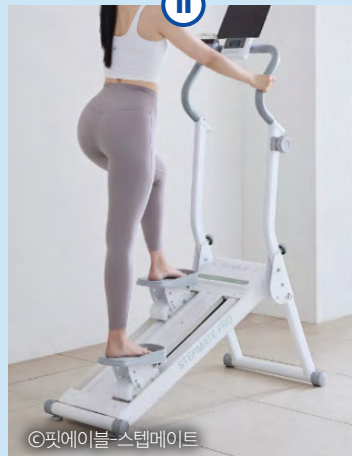
인천우체국
이하나
저는 이제
그만 사야 합니다.

8



우정정보관리원
이상희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현장감 있게
즐기기 위한
빔 프로젝터

11



영월우체국
김미애
지겹도록 함께했던
내 살을 덜어줄
집안용 천국의 계단

©핏에이블-스텝메이트

9



부평우체국
문화자
출근길에
발랄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12



복대구우체국
임희은
독서를 통한
자기 계발을 위해
웃픈 현실이지만
귀여운 돋보기^^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엿한 우정인이 된

8:50 AM



세종금남우체국 서민정 주무관

서민정 주무관은 익숙한 업무는 능숙하게 처리하면서도 새로운 배움을 놓치지 않는 '성장형 새내기'다.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을 마주하는 그의 평범하고도 의미 있는 하루를 함께했다. 글: 편집실 사진: 박시홍



세종금남우체국 서민정 주무관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을 촬영하면 영상이 나타납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종금남우체국에서 우편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주무관입니다. 2023년 3월에 임용된 후 우체국에 근무한 지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Q. 우정가족이 되기 전에는 우체국을 어떻게 생각하 셧나요.

공직 생활 중인 언니를 보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친숙 하게 다가왔어요. 또 어릴 때 학교 행사나 가족 행사 때 손 편지를 쓰며 우표를 붙이던 경험이 있었는데 직접 편지를 보내고 받으면서 느꼈던 기대감과 따뜻함이 우체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죠. 성인이 된 후에는 우체국이 우편 외에도 금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국민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어요.



10:30 AM



2:30 PM

Q. 임용 후 첫 근무지였던 부여석성우체국에서의 3개월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먼 단위 지역이라는 점이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도시의 바쁜 분위기와는 달랐지만, 그만큼 고객 한 분 한 분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문의에도 “고마워요”나 업무가 끝난 후에는 “잘하고 있어”와 같은 말을 해주시는 시골 어르신들의 따뜻함과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Q. 2024년 10월에 리모델링된 세종금남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이곳의 특징이 있다면요?

건물 구조가 길쭉한 직사각형이어서 맞은편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덕분에 우체국 내부가 항상 환하고 포근해요. 이곳에서 고객을 맞이하다 보면 단순히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5:30 PM



Q. 처음 우체국 근무를 시작했을 때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법한데요.

우편물을 접수하는 고객 중 아직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아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 고객에게 주소가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예전엔 이렇게 적어 오셔도 다 들어갔지만 요즘 시스템은 도로명 기준이라 제가 바꿔드려야 해요~”라고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를 계기로 이젠 “어르신, 규정이 바뀌어서~ 정확한 주소를 안 적으면 배달이 안 돼요~ 받는 분 기다리지 않게 빨리 배달해야죠”라고 유머를 섞어서 말합니다. 대부분 “그러네~”하며 웃으시곤 주소를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Q. 신입 시절의 나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민정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배우는 과정이 있고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 시행착오들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 다 해내더라. 그러니 너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 가끔은 수고한 자신에게 칭찬도 꼭 해주었으면 해!”

Q. 새내기 우정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물어보는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걸 묻는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더 잘하고 싶다는 태도에서 나온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성장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

주목! 우정 사진 공모전 시작! 추억도 남기고 선물도 받아보세요

반복되는 일상에도 특별한 순간은 늘 존재합니다.
우정인의 눈으로 담은 따뜻한 장면을 우정 포토제닉에 소개해 주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방법 3+4월호 주제: 변화도전

1.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한 변화와 도전이 담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 과거 사진도 가능! 단, 인물 포함 필수

2. 사진, 짧은 코멘트와 함께 사연을 신청한다.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연이 소개될 경우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정 포토제닉
참여 QR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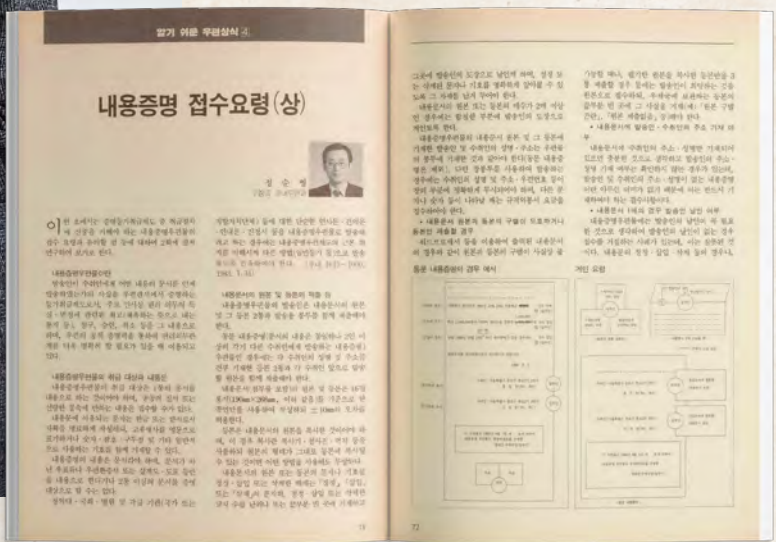


‘소통과 교감’으로 나아갈 우체국의 미래를 꿈꾸다

- 정순영 고문 -



1991년 사보 《체신》의 필자가 된 순간, 정순영 고문은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글쓰기를 통한 소통과 교감의 즐거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퇴임한 지금도 고민한다. 우체국이 국민에게 전할 따뜻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체국과 사람들》을 통해 소통으로 하나 되는 길은 어디인가를. 글. 백미희 사진. 박시홍





지금도 생생한 《체신》과의 첫 만남

1976년 광화문우체국에 첫 발령을 받던 날, 정순영 고문은 수북이 쌓인 연하장과 성탄카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의 의미를 처음 느꼈다고 회상한다. 흰 봉투마다 주소를 적고, 하루 종일 우편번호를 확인하고 손으로 분류하던 시절이었다. 모든 게 수작업이었지만 그만큼 사람 냄새가 짙었다.

그 시절 젊은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배부되던 사보 《체신》은 작은 교류의 장이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공지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전국의 우체국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체신》은 낭만의 시대를 담은 사보였다. 장관·고위직 이야기부터 독자 수필·회고록까지 담아 직원과 시민이 교류하고 소통했다. 이후 《정보와 통신》, 《디지털포스트》, 《우체국과 사람들》로 제호가 변천하며 시대정신을 반영했지만, 소통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다.

사보와의 인연, 그리고 글쓰기의 시작

1991년 체신부 국내우편과로 부임했을 당시, “전국의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아직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무관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원고를 맡았고 3년 동안 《체신》의 ‘알기 쉬운 우편상식’을 책임졌다.

“처음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담을수록 독자들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덕분에 민원이 줄었다’라는 감사 전화도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글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년간 연재하면서, 전국의 동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우체국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인 ‘내용증명 접수 방법’ 원고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은 물론, 우체국과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이후에도 그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외부 원고 칼럼을 통해



근무했던 동해·여수·전남청·의정부 직원들의 지역 보듬기 사례(집 수리, 가전제품 수거, 산불예방 신고, 경로잔치 등)를 글로 엮어 전하기도 했다.

우체국은 문화가 있는 따뜻한 조직

그는 우정 현장을 떠난 뒤에도 별정우체국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5년 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포스트》에 ‘총괄국장 리더십’을 연재했다. 현재는 계간 《정우소식지》 대표편집위원으로서 10년 넘게 재능기부 중이다.

그는 오늘의 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통과 교감’에서 찾는다.

“우체국은 단순한 정부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 속을 헤아리는 문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따뜻해야 하고, 더 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복지의 사각지대, 환경문제가까지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우정의 역할이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을 잇던 작은 봉투 한 장의 기억에서 시작해, 수많은 세대를 이어온 우정의 역사를 글로 엮어온 정순영 고문. 그의 50년은 기술의 진보보다 ‘마음의 전달’을 지켜온 시간이다. ✉



《체신문화》를 시작으로 우체국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체국 사보! 오랜 시간 쌓인 다양한 코너와 콘텐츠 속에는 그 시대의 흔적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연재된 ‘만화’ 콘텐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글. 편집실 자료. 우체국과 사람들 홈페이지



《체신》 1986년 1월호(v.324)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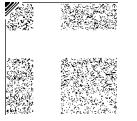
《디지털 포스트》 2015년 4월호(v.675) 게재

- **1950**
1950. 후반~ 1970. 초
《편지》 김용목, 《두더지》 장재형 등
- **1986**
1986. 1.~1999. 12.
《두리번씨》, 《꾸러기가족》, 《더듬이가족》 김마정
- **2010**
2010. 1.~12.
《만화로 보는 우정이야기》
이종탁, 이진한
- **2015**
2015. 2.~2017. 2.
《미리내우체국》시즌12 이동건, 서나래
- **2017**
2017. 2.~2017. 6.
《2016 우정문화 편지쓰기 콘텐츠 &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 **2017. 7.~2019. 2.**
《미리내우체국》 시즌3-4-5
김양수, 윤지선
- **2020**
2020. 2.~2020. 12.
《우표는 사랑을 싣고》 장통
- **2021**
2021. 10.~
《우정카툰》 감자, 몽냥

다이어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뭐가 더 좋을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근력 운동 역시 장기적인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필수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 중 무엇이 더 좋은 걸까. 정리. 편집실



칼로리 소모가 높은 건 유산소 운동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칼로리 소모가 더 큰 것은 유산소 운동이다. 성인이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면 약 145~295kcal를 소모한다. 이는 같은 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소모되는 약 110kcal보다 많다. 그래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열량 소모 효과는 유산소 운동이 더 크다.

유산소 운동은 빠른 체중 감량에, 근력 운동은 감량 유지와 체형 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근력 운동은 즉각적인 칼로리 소모는 적지만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 안정시대사율¹⁾이 높아진다. 근육은 휴식 중에도 지방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늘수록 운동하지 않을 때도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소모된다. 또한 운동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칼로리 소모가 이어지는 애프터번 효과²⁾가 있어 장기적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 함께 해야 더 효과적

하지만 체중 감량과 체형 변화를 모두 원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주당 150~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칼로리 소모를 원한다면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트레이닝(HIIT)이 효과적이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포함한 45분 운동으로 약 485kcal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조절도 필요하다. 섭취 열량이 소모 열량보다 많으면 체중 감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유산소·근력 운동을 함께할 때 체중 감량이 효과적이다. 🚩

1) 안정시대사율: 기초대사율에 일상적인 활동(앉아서 책 읽기, 서서 일하기 등)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한 값

2) 애프터번 효과: 운동 후에도 신체에서 칼로리가 계속 소모되는 현상



근 손실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유산소 운동은 근 손실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근 손실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유산소 운동 중 근 손실(단백질 소모)이 일어나려면 지방을 모두 소모한 뒤 단백질 대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마라톤처럼 장시간고강도 운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시간과 강도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걱정하는 수준의 근손실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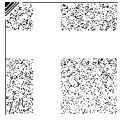


참조

- 유산소 운동 vs 무산소 운동...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건강한 근력운동 A to Z, 메디컬월드 뉴스, 2023. 6. 14.
- 유산소 vs 근력운동...살 더 잘 빠지는 운동은?, 코메디닷컴, 2024. 2. 2.
- "근력운동만으로 LDL 안 떨어집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확실한 운동법 ②, 하이닥뉴스, 2025. 11. 28.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에겐·테토' 밈이 하나의 자기소개 방식이자 연애 언어로 자리 잡았다. 과학적 검증과는 무관하지만, 많은 MZ·알파세대는 이 밈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관계를 탐색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글·편집실



내 안의 테토력과 에겐력 발견하기

테토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에겐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을 의미한다. 분류는 간단하다.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 성향이 강하면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테토'형, 에스트로젠 성향이 강하면 감성적이고 섬세한 '에겐'형이다.

테토녀는 에너지와 추진력이 강한 유형으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얘기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곧장 움직인다. 스타일 역시 합하고 개성이 강해 '자기 결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에겐남은 섬세함과 다정함이 돋보이는 유형으로, 감정의 흐름을 잘 읽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편이다. 겉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성향처럼 보이지만, 요즘 Z세대에게 이 조합이 인기있다. 과거의 '남성은 리드·여성은 조화' 같은 고정 문법이 무너진 시대에, 능동적인 여성과 감정 친화적인 남성의 만남이 새로운 균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테스트

행동이 빠르고 취향이 단순 명료한 유형인 테토남은 부드럽고 차분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에겐녀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다. 테토남의 직진성을 에겐녀의 섬세함이 완충해주고, 에겐녀의 감정 에너지를 테토남의 명료함이 안정시킨다.

사람들이 에겐·테토 테스트에 진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복잡한 관계에서 간단한 언어 하나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또는 어긋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겐 테토 테스트는 요즘 세대에게 자기는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형일까?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성향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성향별 특징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테토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적·직설적·개성 - 하고 싶은 말·행동을 바로 실행 - 인간 관계에서 리드하는 성향이 강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에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감성·섬세 - 상황 파악과 분위기 조율에 능숙함 - 편안한 관계를 추구해 상대방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에겐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정·섬세·공감 - 감수성이 풍부하고 배려심 깊음 - 공감 중심의 대화와 세심한 애정 표현 중시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테토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진·결단·실천 - 행동이 빠르고 책임감이 강함 - 직접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 선호

참조

- "너 에겐남? 나 테토녀"...Z세대의 요즘 자기소개법, 데일리뉴스, 2025. 6. 12.
- 너 에겐남? 나 테토녀!, 한겨레21, 2025. 7. 26.
- 에겐남? 테토녀?... 요즘 MZ는 MBTI 대신 '이것' 본다, 한국일보, 2025. 5. 25.





그곳에도, 눈이 내렸나요

우정사업본부 X KAC 한국공항공사

사보 협업 프로젝트

겨울바람에도 끄떡없는 청주국제공항의 뜨거운 여정

2년 연속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토의 중원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항공 수요
증가세가 청주국제공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새해, 새 날,
커피 타임 없이 바지런히 나아가는 청주국제공항의 희망찬
여정을 따라가 본다. 글. 한국공항공사 홍보실 사진. 한상무

잠들지 않는 활주로, 불 밝힌 공항

약 40만 평의 광활한 부지에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
항은 충청권 및 경기 남부의 인구 증가, 효율적 동선과 빠
른 수속 절차 등 경쟁력을 갖추며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
다. 야간 항공기 이착륙 제한 시간인 커피 타임이 없어
항공편 운용의 효율이 높고, 이로써 물류 및 여객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는 장점 덕분이다. 가파른 성장세는 숫자
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25년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1월 말 기준 421만 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4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선 이용객은 17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중국·일본·동남아 노선의 신규 취항과 증편이 이어지며
충청권은 물론 경기 남부 수요까지 소화한 결과다.
청주국제공항은 여행자에게 청주라는 도시의 매력을 집
약적으로 전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청주 시민의 사랑
방 ‘육거리 소문난 만두’와 청주 시내 이름난 디저트 상점
이 의기투합한 팝업 스토어가 발길을 당기는가 하면, 국

립현대미술관 청주와 연계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펼쳐
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뿐인가. 장쾌한 직선이 돋보이
는 외관, 햇살이 쏟아지는 창과 시원스러운 천고, 여객청
사를 누비는 사람들의 활달한 움직임은 그 자체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직지’의 도시, 청주의 문화적 DNA

청주국제공항 소재지인 청원구 내수읍에는 조선 시대
세종대왕이 행차했던 초정행궁이 있다. 눈병에 시달리
던 왕이 요양하며 한글 반포 작업을 마무리한 곳이다.
고려 후기에는 백운화상이 청주 흥덕사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펴내기도
했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꼽힌 <직지심
체요절>은 청주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몇 해 전부터 근사한 카페가 모여드는 흥덕구 운천동 한



QR 코드를 스캔하면
청주국제공항과 청주우체국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2017년 국제선 터미널 증축과 2018년 주차 빌딩 신축 등 인프라 확충을 거치며 어엿한 중부권 거점 공항의 모습을 갖춰 갔다. 최근에는 2년 연속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취를 보였다.

청주 흥덕사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문화제조창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편엔 청주 흥덕사지와 '직지'의 우수성을 기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자리한다. 전각은 스러지고 터만 남은 흥덕사지는 금구, 청동소종, 금강저, 불발 등이 발굴되어 <직지심체요절> 속 흥덕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한 역사적 장소다. 활자를 다뤄 온 선인들의 공예 감각은 오늘날에도 명맥을 잇는다. 한국 최초로 수장형 미술관을 꾸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옛 연초제조창 건물에 들어섰다. 골격을 그대로 살린 건축물에 미술관, 공예 클러스터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을 마련해 시민과 여행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인 '문화제조창'으로 거듭났다.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본거지인 청주한국공예관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연초제조창의 담뱃잎 창고였던 '동부창고'는 잔존한 7개 동을 리모델링해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의 장으로 활용 중이다. 전통과 현대의 공예가 교차하는 문화 도시, 청주의 형형한 미감이 우리 눈과 마음에 날개를 달아 준다. 📺



함께 웃고 함께 달리는 청주우체국





127년 넘게 지역 우정의 중심으로 자리한 청주우체국.
국내 우정 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우정 서비스까지 선도하며
활약하는 청주우체국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글. 편집실 사진. 김경수, 청주우체국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손길

1898년 2월 25일 청주우체지사로 문을 연 청주우체국은 오랜 시간 지역 우정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1948년 정식 청주우체국으로 승격된 뒤 도심 확장과 함께 늘어난 우편 물량에 대응하며, 서원구와 흥덕구를 담당하는 서청주우체국과 분리되어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갖췄다.

현재 청주우체국은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 지금의 청사로 이전한 것. 일평균 7만여 개의 우편물이 청주우체국 집배원의 손을 거쳐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향한다. 배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 역시 맞춤 설계되어 있다.

청주우체국은 창구보다 배달 비중이 큰 곳이다. 실제로 청주우체국 집배원 한 명의 담당 구역은 평균 1,700여 세대이며 일평균 약 800개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전예숙 물류실장은 청주우체국의 업무 부하를 자체 매뉴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다고 말했다.

“집배팀장 회의를 통해 현장 지원팀을 운영하고 소포실과의 협조를 강화해 시내 팀 간 순환 지원으로 팀 간 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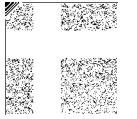


청주우체국에서 판매하는 2026 연하카드와 연하우표

**청주우체국 집배원 한 명의
담당 구역은 평균 1,700여 세대이며
일평균 약 800개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청주우체국 집배실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연탄 배달 봉사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고충 처리 면담과 노사 협의를 통해 집배 업무의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우정

청주우체국은 우편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우취단체와 협업하여 ‘우표 전시회’를 개최해 한국 우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정환 서무팀장은 3년 전 청주우체국으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계기라고 말했다.

“어느 날 청주우체국에 우취연합에 소속된 한 분이 우체국과 협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후 매년 우취단체와 협업하고 있는데 우취인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요. 올해는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광인으로 보는 광복의 역사’ 특별 우표를 사전 예약 판매해 우표 전시회와 함께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죠.”

이와 함께 청주우체국은 제과-제빵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나눔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료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복지관 어르신 대상 점심 나눔, 연탄 봉사, 만원의 행복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률 전국 1위(4,091건)를 기록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청주우체국은 국내 활동뿐 아니라 세계적인 우정 서비스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과정 중 몽골 도로명주소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과정(몽골 도로명주소 관계자 초청)



환한 웃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김수연 주무관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예숙 물류실장이 우체국 도로명 주소 활용 우수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소가 불명확해 수취인이 직접 우체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몽골 연수단원들이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대한민국 우정 서비스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함께라서 더 빛나는 일터

청주우체국의 국내외 활약 뒤에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성장하는 직원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있다.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만나는 직장 동호회 활동은 이러한 팀워크를 뒷받침한다. 축구회, 마라톤회, 산악회, 볼링회, 자전거, 낚시, 야구 등 7개의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며 직원

들의 활력과 행복 지수를 높인다. 특히 야구동호회 ‘청주 스왈로우즈’는 충청청 2024년도 최우수 동호회로 선정될 정도로 조직 내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제 가족이 함께 근무하며 보여주는 협력은 청주우체국의 끈끈한 조직력을 더 돋보이게 한다. 박병주·박우정 주무관, 민병현·민기영 주무관, 이명규·이상성 주무관은 청주우체국의 집배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자관계다. 박우정 주무관은 “어릴 적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라온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복한 직원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체국의 성과로 연결된다. 한인숙 총괄 국장은 청주우체국이 추구하는 ‘고객과 직원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가치가 지금의 성과를 이끄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우체국은 쾌적한 근무 환경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서비스 품질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위치상 도심과 먼 입지 조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25년도 경영 성과에서 충청청 최우수국 달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주우체국은 앞으로도 직원과 고객이 함께 만드는 행복을 토대로 충청권을 넘어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는 우체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객과 상담하는 이소영 주무관



언제나 환한 미소가 가득한 청주우체국



청주우체국에서 만난 그곳

청주를 감싸는 역사와 자연의 성, 상당산성

청주의 산자락에 오롯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대표 석성, 상당산성. 백제 시대에 처음 쌓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산성은 조선 선조 29년 (1596) 때 크게 개축된 후 숙종 42년(1716)에 화강암으로 석성을 다시 쌓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 4.2km에 이르는 돌레와 4~5m 높이의 성벽이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모습이 펼쳐진다. 산과 성, 한옥마을이 어우러진 이곳은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풍경을 선사해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하며 추억을 쌓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상당산성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 28-2

친환경 방식으로 만든 건강한 청주 쌀

청주에서 재배되는 쌀은 대부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다. 우렁이 농법은 풀을 먹는 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해 논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살균 및 해충 기피제로는 농약이 아닌 현미식초와 목초액을 사용해 안전하게 재배된다.

청주에는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브랜드인 '청원생명쌀'을 비롯해 '청주 청개구리쌀', '청주농협 직지쌀' 등 다양한 고품질 쌀 브랜드가 있다. 이처럼 청주는 뛰어난 토양과 친환경 재배법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우체국소핑몰에서
청주 쌀을 검색해보세요.
QR 코드를 스캔하면
우체국소핑몰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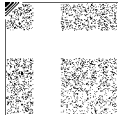
다시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郵征總局)



郵
征
總
局

141년의 세월을 품은 우정총국이 새 단장을 마쳤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옛 우체국의 기록을 살펴보고 어린이와 가족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 말이다. 정리, 편집실 사진, 우정사업본부



역사 속 우체국, 시민과 만나다

국가유산(사적 제213호)인 우정총국이 리모델링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됐다. 2025년 8월, 임시 휴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우정총국 재개관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행사에는 김정렬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박철 홍보협력담당관, 이영훈 서울중앙우체국장, 조권행 한국우취연합회장 등 우정총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렬 서울지방우정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정총국 재개장은 단순한 전시 공간 개방을 넘어, 관람객에게 역사적 의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주변 사적, 박물관 등과 함께 역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행사 참여자들은 새롭게 단장한 우정총국 내부를 둘러보며 전시 구성과 설명이 한결 명확해진 것을 체감했다. 박한선 전 광화문우체국장은 이날 도슨트를 맡아 전시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시물과 체험으로 풍성해진 우정총국

우정총국 전시관에서는 우정국 설립과 관련된 옛 사료, 구한말 우정총국 제복, 1884년 당시 서울(한양)의 지도, 우리나라 최초 발행 우표인 문위우표, 우정총국을 설립한 홍영식 선생의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과 어린이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어린이들은 집배원 옷을 입어보며 역사 속 집배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우정총국은 1884년 4월 홍영식 선생의 건의로 설립됐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개업 축하 행사 중 갑신정변이 발생하며 본채를 제외한 부속 건물이 모두 소실되고 우편 업무도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 1893년부터 우편 업무가 재개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우정총국 재개장은 시민들에게 우리 근대사의 흐름을 더욱 생생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정총국
위치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9
전화 02-734-8369
운영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새해 첫날 휴무
관람료 무료



안 먹는 약, 우체통에 넣으세요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어디에 버려야 할지 고민되던 폐의약품,
이젠 우체통에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편리한 배출로 생활 속 환경 보호를
도와줄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우정사업본부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끝!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는 안 먹는 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까운 우체통에 배출하면 우체국이 이를 회수해 지자체의 지정 보관 장소로 배송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우편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환경 보호와 약물 오남용 예방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폐의약품을 우정사업본부 회수 전용 봉투 또는 약국 조제약 봉투를 재 활용한 우체국형 조제약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전용 봉투가 없다면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고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후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액체류 약은 우체통 투합과 우체국 창구 제출이 불가하며 가까운 약국이나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폐의약품 회수 과정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2023년 1월 세종시에서 시작된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는 수거 용역비 절감과 수거량 증가라는 성과를 내고 적극행정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참여 지자체 또한 2025년 10월 기준 63개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로 환경 보호와 약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뛰어난 성과와 시민 참여율에 힘입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25년 ‘약의 날(11월 18일)’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시보건소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의약품 회수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은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을 지참해 우체통에 배출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과 세종 지역 회수함 위치를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참여 지자체(64곳)

※ 2025년 12월 기준

20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세종시·나주시
2024년	광주 광산구·임실군·순창군·동해시·삼척시·광주 동구·부산 연제구·예산군 거제시·거창군·양산시·하동군·하남시·태백시·무주군·예천군·음성군·춘천시 경주시·정선군·포천시·함양군·시흥시
2025년	화성시·봉화군·홍천군·상주군·청송군·경산시·산청군·합천군·광주 북구 대구 남구·포항시·의성군·충주시·함안군

우체국 핫클립

우체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세요! 출퇴근길처럼 무료한 잠깐의 시간 속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요.

정리. 편집실



먹다 남은 약, 여기에 버리라고요? | 나의 쓰레기 아저씨

쓰레기는 미래다라고 믿는 배우 김석훈!

쓰레기가 우리의 미래이자 보물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본격 쓰레기 콘텐츠.

우체국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영상 바로가기



인천 사람도 모르는 비밀의 건물에서 시작된 인천 여행

100년의 시간을 품은 인천우체국에서 인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개항의 역사를 담은 인천개항박물관, 노을이 아름다운 월미도까지 우체국이 소개하는 인천의 진짜 매력을 따라가 봅니다.



영상 바로가기



SINCE 1995, 우체국 공익사업 30주년

30년 동안 우체국 공익사업이 만들어낸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일'이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우체국은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바로가기



2026년 우체국 연하카드

가끔은 손끝에 머물던 그 온기가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죠. 올하는 오래 기억될 마음을 손편지로 전해보세요. 연하카드 판매 기간 2025. 12. 1.(월)~2026. 1. 31.(토)



영상 바로가기



제15기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2025년 2월 발대식 이후 최선을 다해 함께 달려온 65명의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의 활동 마무리 현장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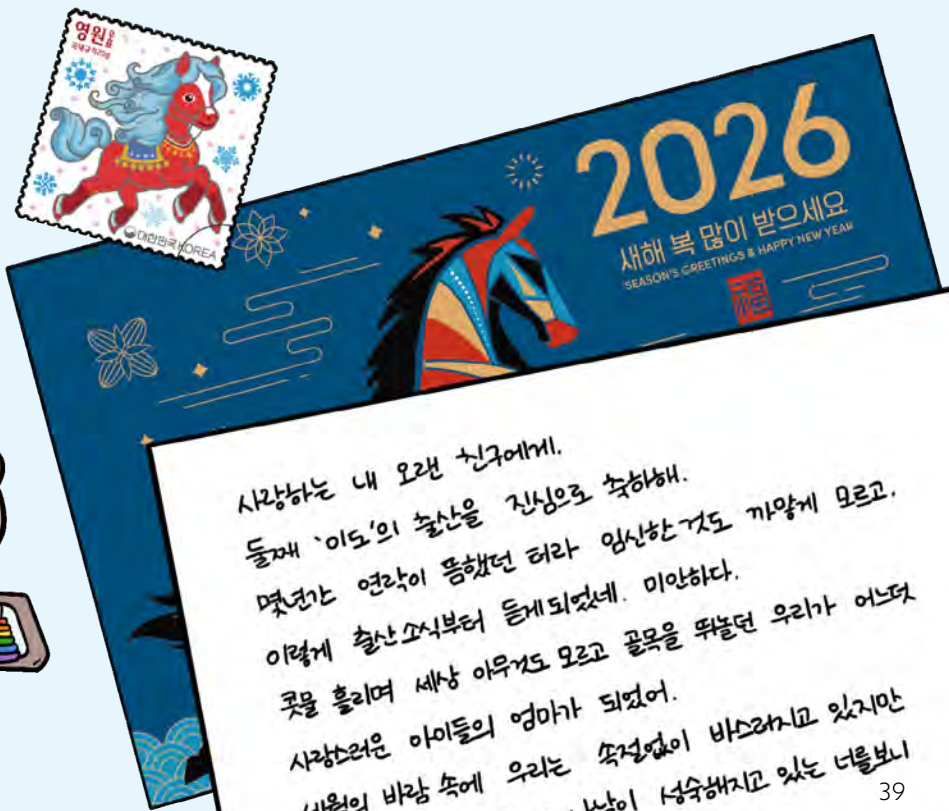


영상 바로가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림. 몽냥





독자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해 '우체통 앞에서'에 소개합니다.
 ✉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E-MAIL : hj1911@posa.or.kr

First Story

데미안



from. 이지은(경기 안양시)

『데미안』을 읽어보려 여러 번 도전했었다. 유명한 책이라 꼭 읽고 싶었지만,
 나의 문해력 한계 때문인지 좀처럼 읽히지 않아 몇 년 동안 책장에 묵혀두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의식적으로 책을 읽어보자고 다짐했고 읽은 김에 기록까지 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다시 꺼내든 『데미안』이 이번엔 이상하리만큼 잘 읽혔다. 독해력이 그사이에 오른 걸까,
 아니면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걸까? 아무튼 책이 '읽힌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물론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여러 번 되돌아가 읽어야 했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어
 읽는데 속도가 나진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내가 이 책의 내용을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개인 한 사람의 깨어남, 살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왜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지 어렵פות이 알 것 같았다.
 마침, 나 역시 '마흔을 앞두고, 나이만 먹어가는구나'하는 불안감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황을 느끼던 중이라 책의 문장이 더 깊숙이 와 닿았는지도 모르겠다.
 20대와 30대를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 같지 않아 더 두려운 요즘, 젊음에 대한 아쉬움도 스며 있는
 이 복잡한 마음들 속에서 나는 여전히 '알'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못한 채 안주하며 살아왔다는 걸
 책을 통해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늦었다는 생각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찾아보고 싶다.
 늦게라도 내 안의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믿는다.



Second story

먼저 가는 마음

from. 오진숙(경기 안산시)



늦가을 오후, 우체국 창구 유리창에
 햇살이 얇게 내려앉는다
 우체국 안에는 김장김치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늙은 어머니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주소 쪽지를 꺼낸다
 글자마다 손등의 골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나는 옆에서 상자를 잡아주며
 테이프 붙이는 것을 돕는다
 고춧물 스친 듯 붉은 실밥 같은 것이
 테이프 사이에 오래 머문다

“잘 부탁해요”
 그 한마디가 상자 테이프를
 다시 한번 눌러 붙인다

잠시, 포기김치를 북북 찢어
 내게 건네오던 손이 떠오른다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겨울은 이미 지나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나선다
 뒷모습 위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따라간다

상자 걸면에 나온
 마늘과 생강과 배추의 숨,
 내 손끝에 아직 따뜻하다

Post News

1 주민 안전 위협하는 빈집 집배원이 찾는다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이 2025년 12월 3일 체결됐다. 빈집 실태 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 확인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그간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높이는 등 빈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 ‘붉은 말의 해’ 기념 2026년 연하우표·연하카드 발행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열정과 도약의 상징인 말을 주제로 한 연하우표 60만 8,000장, 소형시트 28만 장과 연하카드·엽서 12종이 2025년 12월 1일에 발행됐다. 연하우표에는 붉은빛을 머금은 말이 설원을 힘차게 내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하카드 고급형(4종)은 2,200원, 일반형(6종)은 1,700원, 연하엽서(2종)는 1,000원이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맞춤형 연하카드는 고급형 3,000원, 일반형 2,200원이며, 연하우표를 활용한 행운 카드는 1,000원이다. 연하카드·엽서는 판매가격에 우편요금도 포함돼 별도로 우표를 구매해 붙이지 않아도 된다.



3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례로 안전한 우체국 만들어요

전국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제우체국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제우체국은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사례 등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와 제주우체국, 완도우체국은 우수상을, 양양우체국 등 8국은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 사례는 책자와 교육 영상으로 제작돼 전 종사원 안전 역량 강화에 활용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부는 겨울철 종사원 안전 확보를 위한 겨울철 안전보건 특별 관리 기간도 올해 2월까지 운영한다.



4 노후 준비 걱정 없는 우체국보험 신상품 2종 출시

높은 적립 효과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돕는 연금보험과 의료비 부담으로 망설였던 첨단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체국보험 신상품 2종이 2025년 11월 25일에 출시됐다. (무)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은 우체국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 적립액 외에 2가지 보너스(운용, 유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연금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무)우체국암뇌심주요치료비보험은 암·뇌·심장 질환 등 주요 질병의 오랜 치료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 상품이다.



5

일상 어디서나, 더 실속있게!
우체국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 새 단장

우체국 인기 상품인 어디서나 체크카드가 더 푸짐한 혜택인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로 리뉴얼됐다.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는 기존 어디서나 체크카드 혜택에 ▲친환경 차 충전 ▲구독 서비스(쿠팡와우, 네이버플러스 등) ▲식음료 ▲친환경 식품 판매장 등 최근 선호도가 높은 업종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더 자주, 더 쉽게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6

아이들과 함께한
산타에게 편지쓰기
이벤트 마무리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산타에게 편지쓰기’ 이벤트가 진행됐다. 산타우체국에 편지를 보낸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소원 카드, 크리스마스 스티커, 반짝이는 키링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1층 우표박물관에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산타우체국 포토존 및 체험존을 2025년 연말까지 운영했다.



7

SC제일은행 고객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 본다

SC제일은행 고객도 2025년 11월 10일부터 전국 2,400여 개 우체국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입·출금과 조회 및 ATM(자동화기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 창구와 ATM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가 가능하게 된 은행은 11곳으로 늘었다.



8

김치, 국제우편 발송
12개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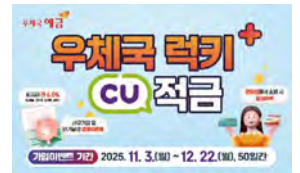
김장철을 맞아 해외 가족과 지인에게 김치를 보내는 국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국제특급(EMS)을 통한 김치 발송 가능 국가를 기존 9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했다. 기존 ▲미국(알래스카·하와이 제외) ▲캐나다 ▲호주 ▲일본(오키나와 제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9개국에서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새로 추가돼 김치 EMS 발송이 가능해졌다.



9

금리는 높이고
혜택은 더한
우체국 럭키+ CU 적금
출시

편의점 CU와 제휴해 최고 연 6.0%(세전) 금리와 모든 고객에게 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신상품 ‘우체국 럭키+ CU 적금’이 출시됐다. 1만 계좌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 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연 3.0%P를 더해 최고 세전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적금 첫 거래 고객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달성 고객 등에게 적용된다. 월 납부 금액은 1,000원부터 최대 30만 원이며, 가입 기간은 6개월이다.



우체국과 함께하는 소아암 환아들의 성장스토리 희망빛이 자란다



지난 연말, 아이들의 웃음과 관객들의 박수로 가득 찬 ‘2025 희망빛이 자란다’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아암 환아들의 숨겨왔던 재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뽐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순간을 선사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최이현

가족에게 주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2025년 12월 9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우체국공익재단이 함께한 ‘2025 희망빛이 자란다’ 성장스토리 발표회가 서울 송해아트홀에서 열렸다.

로비에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온 아이들의 영상이 상영됐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가 운영됐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아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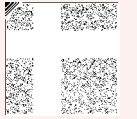
행사 시작 전, 로비에서 인생네컷 포토부스를 이용하던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희진 어머니. 그는 “반복되는 병원 생활 속에서 아이에게 다른 일상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김희진 어머니는 아이의 소아암 진단 직후 병원의 안

내로 한사랑의 집 사직 쉼터를 이용하게 됐다. 2022년 아이의 소아암 발병 당시 쉼터를 이용하다가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돌아갔지만, 재발로 인해 다시 한사랑의 집을 찾게 됐다.

우체국공익재단이 운영하는 한사랑의 집은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병원 근처에서 안심하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거 공간이다. 현재 해화쉼터와 사직쉼터 두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치료받는 동안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며 휴식과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022년에 이용할 때는 놀이방 정도만 기억하는데 요즘은 예술·체육·문화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운영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도 훨씬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시설은 아이 대상 프로그램과 부모를



KOREA POST FOUNDATION



배려한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더 세심해졌더라고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아 어머니의 소개로 한사랑의 집을 알게 된 박희경 어머니 역시 쉽터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한사랑의 집에서 만나 인연을 쌓은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번 발표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오늘은 관람객으로 왔지만 머지않아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 저 무대 위에서 직접 웃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완치된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순간을 꼭 보고 싶어요.”

무대 위에 펼쳐진 아이들의 꿈과 희망 이야기

오후 3시가 되자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다. 사회는 레크리에이션 전문 사회자이자 소아암 환아의 아버지가 맡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사를 이끌었다. 오프닝 공연으로는 빅보스 마칭밴드의 신나는 악기 연주가 펼쳐졌다. 특히 캐럴이 울려 퍼질 때는 아이들의 환호가 더해졌다.

이어 이번 발표회를 마련한 우체국공익재단에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서종진 백혈병소아암협회 부회장은 소아암 가족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우체국공익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사랑의 집 이용자를 대표해 박하윤 어린이도 직접 낭독한 감사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함께 전달된 꽃다발은 아이들이 미술·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동안 한 땀 한 땀 만든 작품으로 그 의미가 더 빛났다.



2부에서는 소아암 환아 6팀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첫 포문은 캔틴 청소년의 연극 <기억여행>이었다. 무대 위의 아이들은 살면서 기뻐던 일, 행복했던 일, 힘들고 슬펐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뒤이어 5~9세 아이들의 유아 줄넘기&울동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행사 때 줄넘기가 미숙했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5~6회씩 성공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 부모와 관객의 뿌듯함을 더했다. 공연 후 한 사랑의 집 환아 어머니가 아이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행사장은 잔잔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또 다른 팀은 <호기심 많은 생쥐>와 <행복한 여우>, <벽 너머 세상>이라는 음악 무대로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재밌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10~12세 아이들의 우쿨렐레와 뮤지컬 <우리의 꿈 & 나는 반딧불> 공연이 이어져 관객에게 희망과 감동 스토리를 선사했다.

6팀의 공연이 끝난 뒤 마지막 순서로는 소아암 완치자인 캔서캔 서바이버(Cancer Survivor Can Project) 4명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들은 소아암을 극복하기 위해 다짐했던 마음가짐, 일상 속 작은 도전 등을 전하고 관객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다.

**이번 행사가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어린이 가족



박예은 학생 가족





병원 밖에서 누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청소년 연극에 참여한 박예은 학생은 “공연을 준비하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병원에서만 보던 친구들을 밖에서 따로 만나며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던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박예은 학생의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공연을 관람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공연에 참여한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더 밝은 분위기라 즐겁게 볼 수 있었어요. 또 줄넘기와 율동 공연에서 아이들이 작년보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우쿨렐레와 뮤지컬 <우리의 꿈 & 나는 반딧불>을 선보인 이찬효 어린이는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의젓한 모습으로 공연을 끝까지 잘 마무리했다. 그런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영락없는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이 묻어났다. “조금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쉬는 시간마다 얼음뎡 같은 술래잡기를 하며 재미있게 무대를 준비했어요. 덕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무대에서 경험은 정말 보람찼어요.”

찬효 어린이의 무대를 기대에 찬 마음으로 관람한 부모님은 “작년에는 목발을 짚어서 무대에 설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건강이 회복되어 자연스럽게 공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뿌듯했다.”라며 웃었다.

이번 발표회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그리고 관람객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자리로 채워졌다. 병원에서만 만나던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밝게 웃고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관객들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스며들었다. ✉



MINI INTERVIEW



희망빛이 자란다 행사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QR을 스캔하면 영상 링크가 나타납니다.



희망빛이 자란다 관계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최정남 팀장



Q. 행사에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무대를 갖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Q.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얻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치료 중인 아이 가족이 공연을 보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곤 합니다. 이번 행사 역시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속·산하기관 소식

1

충청지방우정청
겨울 취약 가구 대상 연탄 나눔 활동 열어



2025년 11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이 대전 동구 판암동 골목 곳곳을 직접 누비며 에너지 취약가구의 난방 부담을 덜어주는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올해 활동에는 우정청 직원뿐만 아니라 우정노조 충청지방본부와 공무원노조 충청지역본부 봉사단 등 22명이 참여했다. 봉사팀은 연탄을 전달한 뒤 곧바로 주변 환경정비 활동까지 이어갔다.

2

전남지방우정청
자립 준비 청년 위한 자립 키트 후원



전남지방우정청은 2025년 12월 2일 광주시 내 자립 준비 청년 20명에게 약 1,500만 원 규모의 자립 키트를 후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남지방우정청 임직원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 카드와 함께 자립 키트를 직접 포장하며 정성을 담았다. 이번 활동은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3

강원지방우정청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강원지방우정청은 2025년 11월 19일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복나눔봉사단 20여 명은 배추 나르기, 양념 버무리기, 포장 작업까지 마친 김장김치를 재가 어르신 50가구에 전달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와 10여 년간 시기별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디지털홍보파트너 실무 교육 진행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6층 스튜디오에서 우체국 디지털홍보파트너(이하 우디)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참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사내 호스트가 출연하여 강원지역 우수상품을 홍보했으며, 우디는 라이브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방송 송출 환경을 체험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2025년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 시상식 개최 총 58억 원 규모로 최상위 5개 팀 수상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로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1월 5일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 결선을 열어 최종 5개 연구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초대 AI 챔피언으로는 모바일 AI 에이전트와 스마트폰 앱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선보인 AutoPhone팀이 선정됐다. AI 이노베이션상을 받은 스트라티오코리아팀은 '적외선 AI: 나만 만들 수 있는 적외선 데이터로 여는 재활용 혁신의 새 시대'를, AI 챌린저 상을 수상한 Revivo팀은 모듈형 스캐닝 기반 지능형 모빌리티 외부 상태 진단 시스템을 선보여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SafeAngel팀과 파인호스트팀은 각각 산업 맞춤형 능동 청력 보호 및 소통 장치를 위한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기술과 VUI(Voice User Interface) 기반의 음성 명령을 통해 숙박 운영 전반을 자동화하는 AI 솔루션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는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의 자유 연구 주제로 자유롭게 구성

된 팀원과 함께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총 630개 팀이 대회에 지원하는 열띤 반응을 보였다. 참가한 연구팀들은 사전 심사 100개 팀, 중간 심사 20개 팀, 결선 1차 심사를 거쳐 8개 팀으로 압축된 후 최종 결선 심사에서 '인공지능 챔피언'을 가려내는 수개월에 걸친 긴 서바이벌의 마침표를 찍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에서 최종 우승하여 '인공 지능 챔피언'으로 선정된 AutoPhone팀에게 11개월 동안 연구 성과를 고도화하는 후속 연구개발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조정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최대 3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 개발 과제로 선정해 지원했다.

또한 스트라티오코리아팀에게는 최대 12억 원 규모로 후속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Revivo팀, SafeAngel팀, 파인호스트팀에게는 최대 5억 원의 규모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독자 참여

2026 1+2 VOL.768



2025년 11+12월호
정답

- ① 우체국FC
- ② 마젠타 우표
- ③ (무)우체국치매요양간병보험

EVENT. 1

알쏭달쏭 퀴즈

이번 호를 읽고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총 1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으로 최근 리모델링 후 가족과 어린이가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 광화문우체국 2. 우정총국 3. 우정사업본부

② 우체국보험 기본 적립액 외에 2가지의 보너스(운용, 유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연금 보장을 대폭 강화한 보험 상품을 골라주세요.

1. (무)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 2. (무)우체국암뇌심주요치료비보험 3. (무)우체국온라인암보험

③ 안 먹는 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까운 000에 배출하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환경 보호와 약물 오남용 예방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소방서 2. 우체국 3. 경찰서

이벤트 모바일 참여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VENT. 2

체국이를 찾아라!



책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곳에 숨겨진 2명의 체국이를 찾아보세요. 체국이를 발견한 페이지 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EVENT. 3

할 말 있어요

<우체국과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혹은 취재 요청이 있다면 우체국과 사람들 웹진(postnews.kr)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 채택 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PC 참여 방법

우체국과 사람들
(www.postnews.kr)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우체국과 사람들>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해
참여해주세요. 세 가지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 기한 2026년 2월 28일(토)

* 이벤트는 웹진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체통 앞에서'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하여 <우체국과 사람들>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 보낼 곳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 메일 hj1911@posa.or.kr 📍 주소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5층

※ 원고는 가급적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보험

튼튼한 노후를 위한 **보너스가**

팡팡

운용 보너스

유지보너스

터진다



상품안내 QR코드



(무) **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 2511

①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한
기본 적립

②

자산운용이익률에 따른
운용보너스

③

연금 개시까지 유지 시
유지보너스

*2종(연금강화형) 가입 시 지급

우체국보험은「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본 상품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상품은 신공시이율Ⅳ에 연동되며, 신공시이율Ⅳ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운용보너스와 유지보너스(2종 연금강화형에 한함)의 계산방식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예시는 상품안내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www.epostlife.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우체국F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 승인번호 00-251110-947-P200070(2025.11.25. ~ 2026.11.24)



《우체국과 사람들》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우체국과 사람들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COVER STORY

1946년 10월 창간,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체국과 사람들》의 표지는
그동안 이어져 온 사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체국 사보의 시작을 알린
최초의 제호 《체신문화》의 1950년 2월호(vol.15) 표지를
재해석했습니다.